

# KIA, 한화·넥센 잡고 화난 팬심 달랜다

## 프로야구 전망대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4강 싸움 언저리로 밀려난 KIA 타이거즈가 강세를 보였던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팬심 달래기에 나선다.

KIA는 윤석민을 마무리로 돌려가면서 4강 불씨를 살리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마운드 개편 후 열린 11경기에서 3승8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4위 넥센과는 7경기 차 7위다.

불편이 강화되자 선발이 무너졌다. 양현종이 복귀 후 두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상 재발로 자리를 비웠다. 믿었던 김진우도 침착하지 못한 승부로 무너지면서 4강이 멀어졌다. 순위 싸움에서는 밀려났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 패배에도 응원을 보내고 있는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승부를 펼쳐야 한다.

KIA는 18일 군산 홈경기에서 모처럼 가동된 타선의 힘으로 7-4 대역전극을 펼치며 LG의 1위 등극을 저지했지만, 앞선 5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하며 우울한 한 주를 보냈

## 이틀간의 천금같은 휴식기 투·타 전력 재정비

### 자존심 구긴 선동열 감독 1000경기 출장 관심

연패 탈출로 한숨을 돌린 KIA는 이틀간의 천금같은 휴식을 통해 전력을 재정비한다. 2연전 휴식기 이후에는 대전으로 건너가 22·23일 한화를 만나고 24·25일에는 목동에서 넥센을 상대한다.

일정은 좋다. 김주찬·양현종의 부상에 이어 김진우가 지난 두산과의 경기에서 베이츠 커버를 들어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단순 타박이지만 1차례 등판을 걸려야 하는 만큼 엔트리에서 제외 시켜놓은 상태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이들의 휴식은 반갑다.

또 상대전적에서 앞서있는 두 팀과의 대결인 만큼 한결 부담은 덜하다. KIA는 올 시즌 한화와의 승부에서 8승2패를 거뒀다. 한화만 만나면 투타 모두 펼칠 날았다. 올 시즌 KIA의 평균자책점은 4.90이지만

한화전은 2.90으로 묶였다. 타자들도 0.326의 타율을 기록하며 불방망이를 선보였다. 또 0.421의 출루율로 경기당 평균 7.5점을 만들어냈다.

넥센과의 승부에서도 상대의 강타선에 고전을 하긴 했지만 6승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상이 겹친 마운드를 만회하기 위한 타선의 힘이 필요하다. 특히 공격의 물꼬를 터야 할 이용규의 활약이 중요하다.

전반기 지독한 부진으로 명성에 미치지 못했던 이용규는 시즌 중반에는 어깨 부상으로 지명타자로 나서는 등 '반쪽 활약'에 그쳤다.

이용규는 지난 14일 SK와의 경기에서 톱타자 겸 중견수로 복귀했다. 이용규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KIA의 공·수 운영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팀 공격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

##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1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95	56	37	2	0.602	-
2 LG	97	58	39	0	0.598	0.0
3 두산	97	54	41	2	0.568	3.0
4 넥센	95	50	43	2	0.538	6.0
5 롯데	95	47	45	3	0.511	8.5
6 SK	92	44	46	2	0.489	10.5
7 KIA	93	42	49	2	0.462	13.0
8 NC	97	39	54	4	0.419	17.0
9 한화	91	27	63	1	0.300	27.5

는 이용규는 이번 주 개인 기록에도 도전한다. 6개의 안타가 더해지면 1100안타(58번째), 앞으로 7번 베이스를 더 홈치면 250도루(15번째)를 채우게 된다.

5번째 팀 3만4000안타(-3)와 첫 팀 3900도루(-1)에도 이용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선동열 감독은 1000경기 출장에 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성적 부진으로 자존심을 구긴 선 감독이 2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1000경기 출장 기록을 쓸지라도 관심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오늘 신인왕 굳힌다

## 마이애미 상대 13승 도전

### 경쟁자 페르난데스와 맞대결



넬리고 승률 공동 1위(0.800)로 올라선 류현진은 20일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 다저스 신인 투수 선발 연습 신 기록을 작성한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류현진은 팀 동료 야시엘 푸이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켈비 밀러 등과 함께 신인왕의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마이애미의 선발로 나올 호세 페르난데스 또한 이들과 함께 거론되는 신인왕 후보인 만큼 그와의 어깨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류현진의 신인왕을 향한 행보는 한층 가벼워질 예정이다.

160km에 이르는 빠른 볼과 면도날 슬라이더를 던지는 호세는 올 시즌 23경기에 선발로 나서 8승 5패, 평균자책점 2.45, 탈삼진 149개를 기록했다. 타선의 지원 부족으로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음에도 현재까지 팀 최다승을 거둔 동시에 선발 중 평균자책점 또한 팀에서 가장 낮아 마이애미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믿어지지 않는 응집력을 발휘해 승수를 쌓은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는 페르난데스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는 1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방문경기에서 2-2로 맞선 9회말 잇따라 터진 유격수 헨리 라미레스의 실책 탓에 2-3으로 역전패했지만 최근 10연승 질주 중인 등 무서운 힘을 보이고 있다.

류현진 또한 지난 5월 다저스타디움에서 마이애미와 한차례 맞붙어 6.2이닝 동안 1실점하며 승리 투수가 됐기에 자신감이 넘친다.

마이애미 타선은 팀 타율이 0.231로 내셔널리그 꼴찌인 15위, 득점력(390점)도 바닥이고, 홈런(67개) 또한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적다. 이번 경기가 열릴 필라델피아에서 류현진이 한 번도 볼을 던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변수다.

/연합뉴스



## 유럽팀 솔하임컵 2회 연속 승리

미셸 위가 19일 미국 콜로라도 골프클럽에서 열린 솔하임컵대회(유럽과 미국의 여자골프 대항전) 마지막 라운드 18번 홀 승부에서 버디 퍼팅을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유럽팀은 참가선수 12명이 모두 나선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먼저 3승1무1패를 거두는 등 미국을 14-7로 이기면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존 허, 우승문턱 통한의 연속보기

## PGA 원팀 챔피언십 공동 3위

### 22일 개막 페덱스컵 PO진출

#### 최경주·배상문·위창수도 합류

제이콥슨 존 허(한국어를 허찬수·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팀 챔피언십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아쉽게 돌아섰다. 존 허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골프장(파70·713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곁들여 2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12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존 허는 2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브라이언 허번(미국)과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존 허는 지난해 2월 마야코바 클래식 이후 1년 6개월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2개 홀에서 나온 보기가 아쉬웠다. 연장 2차전까지 간 승부에서는 패트릭 리드(미국)가 조던 스피스(미국)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95만4000달러(약 10억6000만원). 올해 PGA 투어에 데뷔한 리드는 캐디인 아내 저스틴과 첫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존 허는 16번홀까지 4타를 풀이며 리드, 스피스와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하지만 존 허는 17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 공략에 실패, 보기를 적어내 공동 선두 그룹에서 밀려났다. 연장전으로 가기 위해 버디가 필요했던 18번홀(파4)에서도 두 번째 샷이 그린에 못미쳤고 2.5m짜리 퍼트를 놓쳐 오히려 1타를 잃었다.

72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리드는 10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2차전에서 2m가 조금 넘는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승리를 결정지었다. 먼저 3m 거리에서 친 스피스의 버디 퍼트는 홀을 돌아나왔다.

한편 지난 24개 대회에서 톱10에 단 한차례만 진입했던 존 허는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페덱스컵 랭킹 65위로 22일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에 진출했다.

박진은 공동 20위(6언더파 274타)에 올랐지만 페덱스컵 랭킹 125위 안에 들지 못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공동 37위(3언더파 277타)를 차지한 최경주와 공동 52위(1언더파 279타)에 오른 배상문은 무난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위창수도 공동 60위(이븐파 280타)에 올라 힘겹게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 23일은 '야구의 날'... 빅 이벤트

## KBO 올림픽 금메달 주간 선정

### 광주선 28일 펜사인회 등 행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는 '야구의 날' 주간 행사가 열린다.

KBO(한국야구위원회)와 9개 구단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 날인 '야구의 날'(8월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야구의 날 기념주간으로 선정하고 팬 사인회 및 행사를 연다.

5주년을 맞이한 이번 야구의 날의 캐치프레이즈는 'Again 2008, Restart 2020'. 9월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2020 올림픽 정식종목 선정에 대한 야구팬의 염원을 담았다.

또 야구의 날인 23일 경기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새겨진 시합구가 사용된다.

폼 패치를 부착하며 전광판을 통해서 2008 베이징 올림픽 하이라이트가 상영된다.



베이징 올림픽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선수들과 각 구단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도 각 구장에서 펼쳐진다.

광주 사인회는 KIA와 롯데의 경기가 열리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규·윤석민·양현종(이상 KIA)과 전준우·황재균·손아섭(이상 롯데)이 참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